

밀리면 끝난다...미 대선 TV토론 이목 집중

선거 60여일 남기고 오늘 첫 대결...추가 일정 없어 사생결단 해리스 '존재감 없는 부통령' 이미지 씻고 색깔·비전 보여야 트럼프, 평정심 잃지 않고 정책 현안 집중할 수 있을지 관건

오는 1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토론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토론은 선거일까지 6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는 데다 현재로서는 추가 토론 일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출마한 지 두 달도 안 된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토론에서 '존재감 없는 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고 유권자에게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과제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자책골' 덕분에 앞선 토론에서 쉽게 이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까다로운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책 현안에 집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토론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상대

적으로 덜 알려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리스와 트럼프 캠프 모두 이번 토론을 "트럼프에 대한 생각은 정리했지만 해리스를 여전히 궁금해하는 '스윙 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 수백만명에게 해리스를 정의할 중대한 순간"으로 간주한다고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기 파괴적인 본능"을 끌어내면서 자신을 "차분하고 대담하다"운 후보로 내세우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도록 자극하면서 자신은 그와 차별화되는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유세에서 주장했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지하지 않은 남자"이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해리스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공략 포인트를 예상해 대비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본인이다.

참모들은 그에게 "심술궂은 불한당 트럼프"

(mean bully Trump)가 아닌 "유쾌한 트럼프"(happy Trump)가 되어야 한다고 토론에서 인신 공격이 아닌 정책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다.

참모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뿌리깊은 경멸감을 표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정책 부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등 생식권 문제에서 여성 유권자를 잡으려고 공화당의 기존 정책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가 보수층이 반발하자 궤도를 수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우를릭'을 문체 삼을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경선 당시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fracking·프래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철회한 바 있다. 수압 파쇄법은 대선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중요한 현안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일부터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의 호텔에서 체류하며 사실상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유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참모들과 만나 예상 질문을 점검하는 등 틈틈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 "우크라 동부 마을 추가 점령"...병참 거점 확보 시도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를 기습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동부의 병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진격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노보그로디우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우크라이나군의 병참 거점인 포크로우스크에서 12km 거리다. 주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군에 넘어가면 우크라이나군으로선 군수물자 조달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러시아군의 노보그로디우카 점령 발표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거점을 곧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6일부터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에 진입해 기습 공격을 벌이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본토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우크

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 속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18일과 20일에는 또 다른 포크로우스크 인근 마을인 스비리도니우카와 노보고로드스크예를 점령했고, 이날 들어 일부 병력은 포크로우스크에서 10km 떨어진 곳까지도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 전황과 관련,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동안 병력 510명, 탱크 3대, 장갑차 15대, 포 2문, 전자전 장비 등을 잃었다"며 "아나파소프카 등 여러 지역에서 진입하던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한 결과"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진입 이후 한 달여간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1만1천여명, 탱크 87대 등에 이른다"고 러시아 측은 집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 격전지인 도네츠크 이외에 쿠르스크 인근 접경지역과 동북부 하

르키우, 남부 헤르손 등지에서 공습을 주고받았다.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크림반도 등지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날려 하루 동안 1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다.

러시아 벨고로드에서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이 있었다고 현지 지방정부가 밝혔다.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날 "벨고로드 마을 4곳에 드론 공격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벨고로드주 드로노브카 마을에서 차량 1대가 부서졌고 노보페트로프카와 무로프 마을에서는 주택 2채가 파손됐으며 다른 마을 1곳에서는 기업 시설에 경미한 피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억만장자 넘어 조만장자 나온다

"머스크, 2027년 인류 첫 1339조원대 자산가 등극"

미국 전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사진)가 3년 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조달러(1339조원)의 자산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자산 분석 및 마케팅 컨설팅 업체 '인포바 커넥트 아카데미'는 최근 보고서에서 머스크의 재산이 연평균 110%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추정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 등을 설립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2510억달러(336조원)로 세계 최대 갑부인데, 2027년까지 재산이 4배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아다니 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은 연간 자산 증가율 123%를 유지하면 머스크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2028년 '조만장자'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인공지능(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인도네시아 '에너지 재벌'



프라조고판에스투바리 토퍼시프 그룹 회장도 2028년 '1조달러 클럽' 가입이 전망됐다.

세계 최대명품그룹인 프랑스 루이비통모에헤네시의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페이스북의 모회

사 메타플랫폼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30년 조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왕'으로 불린 미국의 존 D. 록펠러 스탠더드오일 창업자가 1916년 세계 첫 억만장자 자리에 오른 이후 누가 첫 조만장자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사회적 병폐도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 상위 1% 부유층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슈퍼 리치' 7700만명이 하위 66%에 해당하는 50억여명과 맞먹는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요르단강 서안서 이스라엘 민간인 3명 총격 사망

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요르단 접경지대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총격에 사망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테러리스트'가 알렌비 다리 교차로에 접근해 트럭에서 내린 뒤 권총으로 보안군을 향해 총격했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3명은 이스라엘 민간인이며 총격범은 사

살했다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요르단 국적 39세 트럭 운전사가 검문소 근무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모두 서안 정착촌에 거주하는 61~65세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요르단강을 가로지르는 알렌비 다리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과 요르단 사이 유일한 국경검문소가 있다. 요르단에서는 킹후세인 다리로 부른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총격사건 이후 이 다리를 폐쇄했다. 이스라엘은 알렌비 다리 이외에 자국 영토와 요르단을 연결하는 검문소 2곳도 폐쇄 조치했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비열한 테러리스트가 우리 시민 3명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우리는 이런 악의 축이 주도하는 살인적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 친이란 세력이 요르단을 거쳐 서안에 무기를 공급하며 폭력을 조장한다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